

개혁복음주의회 제 3호

배도

개혁복음주의회 소개

개혁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임 및 출판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신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청교도 작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및 그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하고 소개하며, 현재 출간되는 여러 해외 작품도 개혁복음주의와 일치할 때 번역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내의 작품도 출판하고 연구하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복음주의회 대표 스테반 황

발행처 및 발행인 개혁복음주의회 출판사 • 대표 이성애

총 편집인 스테반 황

기획 출판 가은숙

재정 운영 담당 조병용

연락처 010-7732-5600(스테반 황)



개혁복음주의회 제 3호

배도



아더 핑크

•

찰스 스펠전

•

에벤에젤 어스킨

•

사무엘 에일스 피어스

•

토마스 브룩스

•

호라티우스 보나르

•

존 오웬

•

가디너 스프링

© 개혁복음주의회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배도

차례 | CONTENTS

1. 배교란 무엇인가	6
아더 핑크(1886-1952) / 오웅근	
2. 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는가	10
찰스 스펠전(1834-1892) / 이중원	
3. 부분적인 배교인가 아니면 최종적인 배교인가	20
에벤에젤 어스킨(1680-1754) / 스테반 황	
4. 배교와 히브리서 6장 4-6절 말씀	24
아더 핑크(1886-1952) / 오웅근	
5. 배교의 악	38
에벤에젤 어스킨(1680-1754) / 황모세	
6.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46
사무엘 에일스 피어스(1746-1849) / 스테반 황	
7. 거짓 선생들의 일곱 가지 표시	64
토마스 브룩스(1608-1680) / 김성환	
8.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66
호라티우스 보나르(1808-1889) / 오병재	
9. 목사의 직무와 배교	74
존 오웬(1616-1683) / 안선형	
9. 끝까지 보호하심	78
가디너 스프링(1785-1873) / 조현목	

역자 소개

❖ 오웅근 목사

총신대학교(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현, 대전 주님의 교회 담임

❖ 이종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졸업
현,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부사무장

❖ 스테반 황 목사

연세대학교(B.Eng.)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Div)/ 비블리컬 신학대학원(Th.M)
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담임

❖ 황모세 목사

달빛 신학교 (M. Div)
고든 콘월 (Th. M)
현,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

❖ 김성환 목사

총신대학원 (M. Div)
현, 평강 교회 담임

❖ 오병재 목사

필라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M. Div)
연세대 신학 석사 (Th. M),
현,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 부목사

❖ 안선형

인하대학교(BA)
부평소망교회 안수집사
번역작가(영어, 일본어)

❖ 조현목

개혁주의를 사랑하고 경건 서적 번역을 즐거워하는 순수한 청년
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정치외교학과 및 스페인어과 졸업

1. 배교란 무엇인가



출처 | *Studies in the Scripture*

저자 | 아더 핑크(1886-1952)

목사이며, 순회 성경 교사, 영국 노팅햄에서 출생.

역자 | 오웅근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의 공로를 진실로 믿음으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의 확신은 육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그 믿음을 자주 철저하게 성경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참 믿음인지 아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은 글을 읽는다면, 그들은 당당하게 이 글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결론을 지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년 전에 거듭났다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들은 기회가 있는 날들을 낭비했고, “깜깜한 흑암”은 영원히 그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엄숙하고 두려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독자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사 저를 드러내주시옵소서. 만일 제가 스스로 속고 있다면, 영원히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아닌지,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의 모든 고집을 버리고 진실로 주께 굴복했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진정 회개를 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간절하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길 갈망하는지, 그리고 제 자신을 혐오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제 자신을 부인하도록 구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인지(요일 5:4) 아닌지, 이 믿음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떤 단순한 개념이나 사상은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인지 아니면 단지 땅만 버리게 하는 가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히 말하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니면 단지 회칠한 위선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실하게 울부짖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만일 정직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에 대한 참 진리를 대면하여 알기를 바랄 것이다.

아마도 어떤 독자들은 “저는 이미 저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자여, 그렇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그들의 마음에 보내셔서 이전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키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중생시킨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며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깊은 열망과 진실한 결심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지옥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를 사탄의 지배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해 주신다. 그리스도는 그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아사랑으로부터 구해 주신다. 진실로, 그분은 이 복된 사역을 아직 마치지 않으셨다. 진실로, 죄악된 본성은 아직 뿌리째 뽑히지 않았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롬 6:14). 구원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새롭게 하며, 삶을 완전히 바꾸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기적이 발생한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 경건한 삶과 순종적인 행동과 영적인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니다. 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당신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당신 자신을 부지런히 그리고 신실하게 점검할 것을 권한다. 당신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배교는 무엇인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것이다(딤후 1:19). 배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히 3:13).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것이다. 배교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들이 있다. 첫 번째는, 롯의 아내 처럼 표면적으로는 소동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눅 9:62). 두 번째는, 뒤로 물러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요구가 너무 부담되어서 더 이상 주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돌아서는 것이다(요 6:66). 거룩의 길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는 너무 좁다. 네 번째는, 뒤로 넘어지는 것으로서 치명적이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사 28:13).

2. 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는가



출처 | *Absconding and Apostasy*

저자 | 찰스 스펀전(1834-1892)

영향력 있던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톤 출생

역자 | 이증원



“너희도 가려느냐”(요 6:67)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생기는 재해들 중 교우들이 떨어져나가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목회자의 가슴을 찢는 가장 쓰라린 슬픔은 그의 가장 친밀한 친구들의 배신이다. 교회가 염려해야 하는 가장 비참한 재난은 외부의 적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거짓 신자와 배교자의 공격이다.

교회 내에서 교인으로 등록된 많은 자들 중 일부는 떠난다. 그들은 잠시 동안 교회에 머무르다가, 곧이어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히 우



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일 2:19).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와 교제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이는 교회의 손실이 아니다. 그들의 이탈은 실제 손해가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흠어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까부르는 키로 계속 키질을 하신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실 때 그분의 교훈은 끊임없이 그분의 청중을 걸러내셨다. 즉, 그들 중 얼마는 쭉정이었기 때문에 날아가 버렸다. 그들은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또한 신적인 통치의 모든 계획에 따라, 귀중한 것들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은으로부터 불순물이 정제된다. 이에 좋은 알곡과 순은은 남겨지고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그 과정은 신실한 믿음에 머물러있는 자들로 하여금 크게 마음을 살피게 하고, 온화하고 동정심 많은 심령들에게는 깊은 근심을 끼칠 것이다. 다음의 주님의 말씀을 내 자신 및 교회의 여러 사역자들에게 적용해보라.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해보라. “너희도 가려느냐?”

왜 어떤 이들은 그들이 한때 믿고 따랐던 신앙고백을 저버릴까?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의 부족과 참 믿음의 결핍, 그리고 생명의 경건의 부재이다. 하지만 이는 배교의 ‘외부적’ 요인들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떠난 ‘내면의’ 배교를 드러내 준다. 필자는 여기서 이 내면의 배교를 다루고자 한다.

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는가: 주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도 주님의 가르침을 견뎌낼 수 없어서 떠난 자들이



있었듯이, 그러한 배교자들은 오늘날에도 있다. 우리 주께서는 이전의 어떤 경우보다 더 명확하게, 영혼들은 그분을 꼭 먹어야 한다고 선포하셨다(참조, 요 6:48-59 -역주). 그들은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때에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요 6:60).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복음에는 인간본성을 거스르고 인간의 교만에 반하는 여러 부분과 특징들이 있다. 복음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이 비참하고 타락한 인간본성의 변덕에 맞는 복음을 고안해내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지 결코 인간의 타락한 입맛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무뿌리 위에 도끼를 놓고 인간의 교만을 잘라내신다.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인도에 따라 겸허한 교훈을 설교하면 “나는 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어떤 진리라도 자신들의 선입견에 상처를 주면 견어차 버린다.

형제들이여, 헌신을 요청하는 복음의 요구에 뭐라고 답하겠는가? 당신이 만일 당신의 가장 아끼는 즐거움을 책망하거나 당신의 소중한 확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며 떠나겠는가?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마음을 합하라. 그러면 당신은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환영하며 그분의 모든 교훈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교훈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입증되기만 한다면, 바른 마음을 가진 신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명백한 내용이라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사 8:20)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그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라고 말하며 거절할 것이다. 그 교훈이 단지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추론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 진실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급하게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베뢰아 사람들처럼 인내를 가지고 잘 살펴볼 것이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행 17:11). 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 받으실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모범과 주님의 신성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고, 그분이 명하신 것을 즉각 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이들은 이득을 위해 구세주(the Savior)를 떠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들었다. 만일 당신이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버는 것 그 자체는 전혀 악이 아니다- 정직하게 벌어라.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부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의 제품을 팔고 당신의 상품을 위한 시장을 찾아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팔거나, 하늘의 장자권을 무가치한 뇌물과 바꾸지 마라. 당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당신 매장의 창가에 전시하라. 그러나 신앙을 돈벌이로 바꾸려는 생각으로 위선적인 표정을 짓거나 거룩한 척 하는 눈빛을 띠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비열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길 소망한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결코 발붙이지 못하기를 바란다! 혹시 존경과 명성은 이득 때문에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있는가? 그는 머지않아



교회가 자신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멀리 떠나갈 것이다. 실은, 수치스럽게 내쫓길 확률이 더 높다.

몇몇은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간다. 오늘날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불신자 남편은 웅졸한 폭군처럼 굴면서 자기 부인이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대신 아내의 삶을 모질게 속박하려고 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주 악행을 가한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동료가 예배당으로 갈 때, 비웃고 야유하고 끔찍한 조롱을 퍼붓지 않고는 그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지 않는 경우이다. 많은 경우, 작업장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배격할 때 가장 크게 들린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구원에 대해 관심 갖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굉장한 즐거움으로 여긴다. 그들은 자신들을 “영국인”이라고 일컫지만, 분명 그들은 국가의 불명예이다. 태생적으로, 버릇없는 비겁한 자들을 보라.

더 나아가 무신론자들이 있다. 판사는 무신론자의 선서를 믿지 않을 것이기에, 무신론자는 그의 권리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의 동료가 기독교 신자가 될 권리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영국의 소수 노동당(little party of British workmen)을 보라. 그들은 주일을 모독하는 모임이다. 그들은 일요일에도 박물관과 극장을 개방할 것을 국회에 청원한다. 동시에, 그들은 예배당에 가길 좋아하는 가없는 동료를 죽도록 괴롭힌다. 그들은 그들이 언급한 공약으로 자신들의 자기



존중을 공표하는 반면, 찬송가를 부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조소를 퍼부으면서 자신들의 천박함을 드러낸다. 그들은 술주정뱅이를 친구처럼 여기며 환영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마귀처럼 여기며 업신여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러한 핍박을 견뎌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그들이 우리에게 골수에 사무치는 고통을 주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며 심지어 우리가 구세주를 위해 고난 받는 만큼 가치 있는 자라는 사실에 기뻐하기를 바란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수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한 말은 끊임없이 왜곡되어 왔다. 우리가 하려고 애썼던 일들이 그릇된 평을 받아왔으며, 우리의 진의는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서 온 자들처럼 행복하다. 우리 위에 쌓여가는 그 어떤 또는 모든 비방들도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박살내려 하지만,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낙심할 때면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당신이 그런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혼의 힘과 마음의 용기를 주신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치, 가을 밤 철새들이 먼 지방으로의 힘든 여행을 떠날 때 하늘 높이 머리위로 날며 내는 소리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을 대면하라. 진정한 용기는 반대에 부딪칠 때 더 강해진다. 그리스도의 군대를 떠날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결코 몇몇 불량배들의 무례함 때문에 겁쟁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믿음이 그런 비웃음 따위에 굴복 당하지 않도록 하라.

때때로, 단지 변덕으로 인해 참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



이 있다. 나는 몇몇 사람들의 배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일 당신에게 파선한 배들의 목록이 있다면, 충돌사고 및 암초와 부딪쳐서 난파된 기록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은 배가 바닷속으로 이유 없이 가라앉은 기록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선주 자신도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날은 바다가 잔잔한 날이었고, 배가 침몰할 때는 구름도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믿음에 관하여 어떤 신앙인들은 그런 명백히 쉬운 환경-시련으로부터 자유롭고 유혹도 없는-속에서도 파선한다. 우리는 그들의 편안한 환경 때문에 그들에 대해 염려할만한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침몰하였다. 우리는 이에 깜짝 놀란다!

나는 어떤 지체가 무서운 죄악으로 떨어진 것을 기억한다. 그를 본 어떤 교우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도 아닙니다.” 그 지체의 기도는 분명 달콤했다. 몇 번이고 그는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녹아내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명백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거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나는 그들의 신앙을 변덕의 한 종류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한 편의 설교를 듣든 연극을 보든 황홀함을 느낄 수 있고, 예배당에 앉아있든 오페라 공연 좌석에 앉아 있든 동일하게 지루함을 느낀다. 그들은 “모든 것은 계속 바뀌며 그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는다” (로드 바이런, 1788-1824: 18-19세기 낭만주의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국 시인)라고 하며 시간을 즐길 만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한다. 그들은 물처럼 변덕이 심하여 탁월할 수 없다 (창 49:4). 그들은 충동적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독교를 떠나 불신으로 떨어진다. 즉, 썩이 나지만 갑자기 말라버린다. 씨앗을 뿌리자마자 곧바로 썩이 난다. 큰 풍년을 기대할 만하다! 아아! 그러나 타는 듯한 열기의 태양이 뜨자마자, 그 씨는 흙이 없으므로 곧바로 말라버린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그 위에서 자리를 잡고 세워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당신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엄청난 파멸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마 7:24-27).

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속적인 향락을 위해 그리스도를 떠나던가! 나는 이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일시적인 죄의 즐거움은 사람들의 영혼이 더럽고 천박한 이방 신전에서 희생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유혹한다. 그들은 신나는 춤과 음탕한 즐거움과 깊은 사고가 필요 없는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참된 만족을 주는 즐거움과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을 저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의 즐거움을 주시는 복되신 구세주께 등을 돌린다.

교회의 목양관리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석자들에 대한 장로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결석자들의 공허한 변명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변명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못 왔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변명은 교회가 집에서 너무도 멀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들의 가족 수는 지금과 같았고, 교회와의 거리도 지금과 같았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자, 집안일을 돌보는 것은 더욱 귀찮아졌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은 흔들렸으며, 이에 이동하는데 따른 피곤함은 증가하였다. 장로들은 그들의 믿음이 식



어가는 것을 염려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떤 실제적인 죄를 감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몹시 슬퍼하는 점진적인 퇴보가 있다. 나는 그런 냉담함이 무섭다. 냉담은 서서히 다가오지만, 머지않아 분명하게 모든 틀을 뒤집는다. 필자는 그러한 냉담함이 공공연한 죄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냉담은 더 은밀하다. 노골적인 죄악은 발작이 환자를 놀라게 하듯 당사자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만한 신앙의 하락은 의심스런 징후 없이 사람을 마비시키는 증세처럼 서서히 엄습한다. 마치 사람이 흑한지대에 있을 때 졸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만일 그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

불건전한 교리가 많은 이들의 배교를 야기한다. 이에 관한 것은 언제나 많이 있다. 사기꾼들은 약한 자들을 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근대의 의심(modern doubt)에 의해 그릇된 길로 이끌려갔다. 일부 배교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과학적/이성적 회의론의 관점에서 쓰인 글들을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런 글들을 조금씩 더 읽을 때마다, 탁류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며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그들이 휘청거릴 때까지 그런 글들을 계속 읽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혼란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발 디딜 곳을 잃고 결국 허우적거릴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한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는 자신도 신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냉혹한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오!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 그들이 배운 것에 만족하기를 바란다! 왜 이단을 갖고 장난하는가?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당신 스스로 그릇된 가르침의 오염으로

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 교훈의 늪으로 향하는가? 굳이 그대가 그렇게 어리석은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질없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만일 당신이 어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갖다 버리라. 누군가가 당신이 그 책을 자세히 읽지 않은 것 때문에 힐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왜 당신이 그래야만 하는가?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떤 책의 한 문장만 읽어보아도 그 책 전체를 알고 거부한다. 그런 책을 좋아하는 자들이나 그 책을 읽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나 나에게서 더 나은 양식이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만일 이러한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맞서라.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책이 시장에 진열되어있을 때, 예수 안에서 겸손한 성도인 당신이 그런 해로운 음식을 맛보고 시식할 이유가 무엇인가?

3. 부분적인 배교인가 아니면 최종적인 배교인가?



출처 | *The Whole Works of the Late Re.
Ebenezer Erskine, Vol. 1.*

저자 | 에벤에젤 어스킨(1680-1754)

스코틀랜드 목사, 스코틀랜드 드라이버르 출생

역자 | 스테반 황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 6:66).

경건한 사람들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변절과 위선자와 임시 신자의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회복될 수 없는 배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에 대해 답하려 한다.

1) 신자는 타락하거나 어떤 죄악에 빠질 때 울부짖고 신음한다. 그 상태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며,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시 40:12). 그들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예로는, 사도 베드로를 들 수 있다. 그는 저주와 욕설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타락의 길을 취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자 그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똑 같은 현상을 보게 된다(시 51편). 그는 우리야와 밋세바의 사건에서 살인과 간통죄를 범한 뒤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얼마나 비통해하며 통곡하였는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형벌이 아니라 자신들의 타락에 대한 도덕적인 악함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고 주의 백성의 공동체에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고백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

2) 그들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더러움이 주 예수님의 피와 ‘영’으로 사함 받고 씻겨질 때까지는 결코 마음의 쉼을 얻거나 안정을 갖지 못한다. 그때까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양심을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다.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시 51:2).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 위선자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변명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무를 많이 늘임으로써 그의 아우성치는 양심을 진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죽은 행실로부터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않는다.



3) 신자는 타락한 이후에 다윗의 경우처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와 화목한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시 51:8). 온 세상이 그를 격려하며 위로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소를 얻지 못하는 한,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

4) 신자는 타락 이후에 그의 본성의 부패와 왜곡에 대해 탄식한다. 그는 개울을 따라 올라가 샘에 이르러 그곳에 앉아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그의 죄성에 대해 울부짖는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는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하지만 위선자들은 자기들의 죄악이나 본성의 부패보다는 명성을 상실한 것 때문에 비통을 느낀다.

5) 신자는 타락하면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 은혜를 통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그는 다윗처럼 그의 남은 삶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시 51:12-13)

6) 불에 데어본 자녀들이 불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한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시 51:12).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소서”(시 17:5).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시 119:5).

이제 당신은 경건한 자들의 부분적인 타락의 여러 특징들을 알게 되었으니 부분적인 타락과 위선자와 배도자들의 저주스러운 배교 및 최종 타락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4. 배교와 히브리서 6장 4-6절 말씀



출처 | *Studies in the Scripture*

저자 | 아더 핑크(1886-1952)

목사이며, 순회 성경 교사, 영국 노팅햄에서 출생

역자 | 오용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히 6:4-6).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엄숙한 본문 중의 하나로서, 신약 성경 어디에서나 그 예를 만나 볼 수 있다. 아마도 중생한 영혼이라면 이 본문을 깊은 생각 가운데 읽으면서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것이다. 아무렇게나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종종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양심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본문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며 독특한 혜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진 기회를 선용하기는커녕 가엾게도 그 기회들을 왜곡하더니 그리스도의 이름에 수치와 욕을 가져온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여 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파선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글이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령께서는 중생한 영혼을 묘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영혼을 묘사하고 있는가? 그 다음으로 할 일은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주해를 하겠지만, 여기서 “타락”이란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는 사함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다.

많은 사람들을 몹시 당황하게 했던 본문의 구절들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게 된 영혼의 상태를 다시 기억해보도록 하자. 그들은 “듣는 것이 둔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단단한 식물을 씹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는 가장 위험한 결과들과 얽혀 있다. 히브리인들은 미지근하고 태만하고 활기가 없었다. 한 때 그들이 분명히 알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복음은 이제 그들에게 따분하고 모호한 것이 되어 버렸다. 동료들의 박해와 경멸은 그들에게 극한 부담이 되었고 그들은 신음하다가 주 예수님과 교제조차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어두움과 의심, 우울, 우유부단함은 그들의 특징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



랑의 능력은 그들의 행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만일 그들이 이 상태에 계속 머문다면, 배교 외에 무슨 결과가 뒤따르겠는가?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망각은 거부로, 무관심은 반감으로, 불충성은 배신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 상태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상태는 절망적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들에게 선포될 다른 복음은 없으며 그 복음의 능력 외에 그들을 구하여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능력도 없다. 그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는 음성을 들었고 알고 있었다, 그들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었고 그분을 그들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택하였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반석을 잃었으며 저버렸다. 만일 그들이 완고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그들은 결국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회개치 않는 최종 위험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들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만드신 후 버리신(마 23:38) 그리스도를 단념하는 것이다. 이는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들을 율법의 일반적인 저주 아래에 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해하고 배도한 눈 먼 나라에 임할 특별한 저주 아래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고 또한 그 유혹이 실제인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데 실패하는 만큼 세상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로잡는 것처럼, 그가 세속에 계속 물들어 있다면 가장 비참하고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본문이 언급한 사람들, 그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그들에게 선고된 운명이다. 본문이 언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도가 “한 때 빛을 받았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너희들”이라고도 말하고 않고 “그들”이라고 말한 사실이다. 사도는 그들과는 크게 대조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말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한다. 4절과 5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을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로 치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들은 큰 특권을 누렸던 부류였는데 그들이 누렸던 특권은 현재의 복음 선포와 관련된 특권들보다 훨씬 컸다. 여기서 본문에서 묘사된 사람들은 1-2절에서 열거된 여섯 가지와는 대조되는 다섯 가지 이점을 가졌는데, 이것들은 유대교에서 속했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에 관해 언급되지 않는 내용을 볼 때 명백하여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언급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것으로도, 그들은 성령으로 거둔 자들로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거나, 용서를 받았거나, 받아들여졌다고 언급되고 있지 않다. 또한 그들의 믿음, 사랑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구별해 내는 바로 그 특징들이다.

첫째, 그들은 빛을 받았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은 그 날



개 아래에서 치유하는 빛을 발하였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계신 날 동안 찾아가시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달리,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들은 놀랄 만큼 영광스러운 빛을 받았다.

여기에서 “빛을 받다”라는 단어는 “가르침에 의해서 빛과 지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70인 역본의 사사기 13장 8절과 열왕기하 12장 2절, 그리고 17장 2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드러내다” 또는 “나타나다”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즉,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빛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교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은 대상을 향한 평행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있는데, 거기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로 언급되고 있다(참조, 벵후 2:20-21). 하지만 이것은 신령한 것들에 대해 단지 외적으로 듣고 읽으면서 아는 자연스러운 지식으로써, 마치 과학과 같은 특별한 학문을 공부하며 얻게 되는 빛(깨달음)과도 같다. 하지만 이 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각성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후 3:18).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빛을 받는” 경우는 발람에게서 발견된다(민 24:4).

두 번째로,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맛을 보는 것은 단순한 정보와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체험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맛보는 것은 먹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맛본 것을 소화하여 영양분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맛보는 것은 그 특성상 그 맛이 맘에 들면 취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



된 사람들은 자비로운 계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였고 또 한 체험까지 한 자들이다. 마치 돌밭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순간적인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맛보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0-56절에서의 “먹는 것”과 대조된다.

“하늘의 은사”에 대한 견해는 그것이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성령님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나뉘게 된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단이 불가능할 것이다. 정말로, 차이점은 특별함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와 함께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늘의 은사가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4장 10절 등이 적절한 참조가 될 것이다. 만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사도행전 2장 38절과 8장 20절, 그리고 10장 45절과 11장 17절이 적절한 참조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후자에 동조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은 여기서 “하늘의 것”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이 은사는 유대교와는 대조적으로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이끌기 때문이다(참조, 행 2:2; 벰전 1:12). 본문의 배교자들은 이 “은사”에 관하여 “맛보았거나”, “경험”하였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맛보는 것”과 실제로 마시는 것이 대조되고 있다. 아무튼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복을 얻었던 만큼, 그들의 죄와 멸망은 더욱 크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13장 20-21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먼저, 여기에서 사용되는 “참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는 골로새서 1장 12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사용되는 “참여하다”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내적이라기보다는 단지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동행자”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단어가 5개 단어 중에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단어가 활동의 핵심으로써 나머지 네 단어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교자는 절대로 “성령으로 난 자”(요 3:6)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여전히 “성령의 전”(고전 6:19)이 아니다.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한 적이 없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모인 곳이 진동하는”(행 4:31) 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특혜를 누렸음을 말한다. 브라운 목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영감을 받은 저자는 초대 기독교 때에 나타났던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과 역사들을 주로 언급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은사들은 결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롬 12:2)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태복음 7장 22-23절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한 말은 그 시대에는 거둬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러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이 구절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상태와 성령의 은사 체험은 결코 양립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필자는 이 표현을 메시아와 관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본질이며 핵심으로 이해한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가 “선한 말”이라고 일컫던 약속으로서 뚜렷이 구별되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복과 유익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누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시대의 유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사도가 배교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29장 10절과 비교할 때 더욱 확실하여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가 “맛보다”라는 단어를 얼마나 신중하게 고수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렘 15:16)라고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은 신령한 젖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단지 맛만 본 자들로서 그 젖을 사모하고 자라났어야 하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단지 맛본 자에 대한 엄중한 예는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다섯 번째는 “내세” 또는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다. 여기에서의 언급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데 그 시대는 구약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의해 도래된 시대를 말한다. 그 시대는 구약 시대와 대조되는 시대로서 히브리서 1장 2절의 “마지막 날들”에 해당한다. 그들의 메시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사 9:6)이고, 그분의 기적적인 사역은 놀랍고 영



광스러우며 엄청나며 유일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이러한 능력들은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배교자들은 이러한 강력한 능력을 “맛을 보았거나” 경험을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증인들이었고 주의 승천 이후로 성령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함께 하는 놀라운 기사들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에 반응하는 믿음이 없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예는 요한복음 11장 47-4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타락한 자들은…”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매우 강하고 단호한데, 심지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강하다. 이 단어는 완전한 타락 및 기독교를 전적으로 포기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에 대해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며, 복음을 완전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파선”(딤펴전 1:19)을 의미한다. 이 끔찍한 죄는 단지 입술로만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부류는 한 때 그들의 마음이 빛을 받았고, 그들의 양심이 동요되었으며, 그들의 감정이 상당한 정도로 감명 받았지만, 결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다. 즉, 이러저러한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그러한 부류가 아니다. 중생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일 것이다. 베드로는 이 죄를 범했지만, 다시 새로워져서 회개하



였다. 한편, 배교는 비밀리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되는 것이며, 기독교의 뚜렷한 모든 진리와 원리를 전부 거절한다.

“타락한 자들은”에서 이것은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 참으로 배교했거나 타락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타락한다면”이라는 뜻의 전제일 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제적인 타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문자적으로 제시된 이 단어는 “타락하여” 또는 “여전히 타락하여”라는 뜻이다. 사도는 명백하게 그러한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였다고 시사한다. 우리는 ‘타락하는 것’을 통해서 보통 배교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배교는 아무리 흉악하고 사악한 죄라 할지라도 때때로 어떤 실제적인 죄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지라도 기독교의 어떤 원리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본질적인 원리들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불신 유대인 또는 이방인처럼 거짓 종교로 돌아가거나 공개적으로 불신앙과 불경건함을 드러내는 현상을 말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에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왜 그러한 경험은 불가능한가? 이 “불가능”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9절과 로마서 11장 29절이 이를 뒷받침한다. 회개는 후회와 자기 정죄로 이어지는(욥 42:6) 정신적인 행위 및 양심의 활동 그 이상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게는 단지 자연적인 반응으로 후회가 있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성령에 의한 역사이다. 후자는 복음적이어서 구원과 동반되는 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고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된다(고후 7:10). 이런 종류의 회개나 후회는 유다의 경우가 가정 적절한 엄중한 예이다(마 27:3, 5). 그의 경우는 배교자의 후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새롭게 하다”는 것은 변화, 큰 변화 그리고 더 나은 변화를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관련된 “새롭게 됨”은 견해와 성품과 섬김에 있어서 중요하고 유익한 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처음 시기에 겪었다고 언급되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 기독교의 교리와 증거와 관련해서 무지 상태에 있었지만 빛을 받았다. 그들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의 진리에 대한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지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들은 한 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오해했고 그 예언들의 성취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신약의 계시가 제시하는 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선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고 외적인 특권에 참여자가 되었으며 새로운 시대의 기이한 힘에 굴복되었다. 그들의 관점과 감정 그리고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무지하고 거만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 단락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하자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사도가 볼 때, 그는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거짓 없이 믿을 만큼 변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크고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기독교의 계시를 전적으로 부인한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들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고 또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분의 작정과 목적 때문에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참조, 삼상 15:28-29).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 또는 질서 때문에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롬 10:13-17).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의무와 또한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정하여주지 않으시면,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눅 13:3).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러한 불가능이 바로 이 구절에서 뜻하고자 하는 ‘불가능’이다. 즉,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명하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정해주지도 않으셨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제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도하며 기대해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것은 그들의 끔찍한 죄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는 것에 대한 불가능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들은 기독교의 고백을 저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공연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없다. 더 나아가 그들과 변론하는 것은 단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구절과 10장 26-29절까지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비교해 보라. 배교자들은 진리에 대해 구원 얻는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 후에 그들은 고의적



으로 죄를 지었다. 즉, 의도적이며 공개적으로 진리를 부정했다. 그들이 짓는 특정한 죄의 특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이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이다). 즉,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일반적인 죄수로 바라본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히 10:26). 그들의 경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도 절망이며, 히브리서 저자가 믿기에는 그들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동일시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자신들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즐거워했던 자들이 있다. 배교자들은 그들과 똑같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현저하게 욕보인다. 그들은 주님을 죽인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역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은 기독교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든 후에 그것으로 판단하더니 이제 기독교를 부인하였다는 고백을 한다.

이러한 경고는 나태한 히브리인들을 고무시키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었고 잘 계획된 경고였다. 구약 시대에서는 모형과 예언을 수단으로 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희미한 빛을 얻었는데, 이를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완벽’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완전한 빛으로 복을 받을 때까지 그림자와 희미한 빛 아래에서 양육되었다. 그들에게 임한 위험은 기독교가 그들을 위해 세운 기반에서 물러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



는 것은 그리스도가 황폐하게 만들고 버리신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마 23:38), 그분을 죽인 사람들과 합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들의 배교에 의해 그리스도를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둬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사실을 보여준다. 지적으로 알고, 양심이 마음을 살피고, 본성적인 감정이 생겼을지라도 그들에게 “뿌리”가 없을 수 있다. 빛이 나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5. 배교의 악



출처 | *"The Whole Works of the Late Rev. Ebenezer Erskine",*
Vol. 1.

저자 | 에벤에젤 어스킨(1680-1754)
스코틀랜드 목사, 스코틀랜드 드라이버르 출생

역자 | 황모세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그분으로부터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며 그분을 향해 손을 들고, 또한 죽임 당하신 구세주께 손을 얹고 그분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그대들에게,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따르도록 권면하고 설득하려 한다. 이 권면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부분적인 또는 전체적인 배교의 악을 먼저 숙고해보라.

1) 배교는 가장 높은 차원의 도발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두 개의 악, 즉 배신과 배은망덕이 담겨있다. 첫 번째로, 배교는 배신하는 것이다. 그 어떤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해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나의 친구들이여, 그대는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대의 남편으로 모셨다. 그런데 그분의 가장 큰 원수 된 죄에 그대의 영혼을 팔아 간음한 것이 어찌 가장 극심한 배신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마치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그분에 대한 중상과 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느냐”(렘 2:5)고 말씀하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미 6:3). 두 번째로, 배교는 은혜를 잃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은 가슴을 깊이 찌르는 말이다. 그분은 똑같은 질문을 그대들 모두에게 던지신다. “나의 인자함이 그렇게 증거된 후에도, 그렇게 반복된 서원과 서약이 있고 난 뒤에도, 너희 역시 떠나려 하느냐?” 이 모든 것에서 볼 때, 배교는 가장 높은 차원의 도발이다.

2) 당신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기독교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수치를 가져온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주와 선생으로 모셨고, 그분을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세상 앞에서 선언하였으며, 그분이 주시는 품삯이 최고의 품삯이라고 여겼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다(시 84:10)고 선언해왔다. 그런데 이제 결국 당신이 신앙을 저버린다면, 세상은 당신이 그분을 섬기면서 당신이 기대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짓지 않겠는가? 따라서 다른 이들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 (1)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그분의 소자들을 괴롭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오히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눅 17:2, 새번역).

- (2) 만약 그대들이 완전히 배교하고 끊임없는 타락으로 신앙을 저버린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추방과 단절의 서곡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타락한 자들에게서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하시고, 이에 그들은 결코 그분의 자비로운 존전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 (3) 만일 그대들이 신자이고 부분적으로 배도한다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이후에도 삶에서 부주의하고, 이전보다 의무에 더 불충실하고, 덜 참여하고, 덜 열성적이고, 덜 의욕적이라면, 그대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암 3:2).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시 89:30-31).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드는 것과 그분의 목적과 관심에 깨끗이 서는 것의 큰 유익을 숙고해보라.



- (1) 그렇게 하면, 당신은 풍성한 내적 평화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시119:165).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그분과 그분의 진리를 붙들면, 그들의 평강은 강과 같고 그들의 의는 바다의 파도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사 66:12).

- (2)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독교에 광채를 비추게 될 것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그리스도의 이 말씀처럼 세상은 당신이 선한 주인을 모시고 있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 (3) 신앙을 저버린 영혼은 죽음의 문턱에서 좌절을 겪게 되지만, 주의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은 만군의 주가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다가올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된다. 바울의 경우가 그러하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7-8).

- (4) 충성스러운 영혼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상이 보장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 보상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 신실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상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보상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



되어 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눅 22:28-29). 왕좌가 보장되어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계 3:21).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벧전 5:4).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딤후 4:8)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될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사 35:10).

필자는 두세 가지 조언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1)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가 잘 놓이도록 하라. 이는 그 누구도 다른 터를 놓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시온에 터를 두신다. 그대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터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환란의 때에 결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대들의 뿌리가 썩고, 그대들의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사 5:24)이기 때문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질 것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음부의 권세의 지극한 노력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마 7:24-27).

2)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 이는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렘 17:9)이기 때



문이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잠 28:26)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불신의 쓴 뿌리가 자라나 역사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히 3:12).

3) 견인하시는 은혜의 약속에 주의를 기울이라. 특별히 예레미야 32장 40절에 기록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는 말씀에 그리하라. 만약 그대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간절히 구하고 진전시켜 나간다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기”(히 6:18)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약의 양쪽 편에서 계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들 안에 일어나도록 간절히 구하라(벧전 1:5).

4) 복되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라. 그대들의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자 보고(寶庫)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이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이다(요 1:16). 죄와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에서 그대들의 대장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이는 그분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기 때문이다(골 2:15). 만일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와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 그대들이 걷는 순례의 길에서 모든 어둡고 힘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대들의 인도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이는 그분은 맹인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사 42:16). 그분을 그대들의 본으로 삼아라. 그분의



모든 본받을만한 온전하심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라. “예수를 바라보고”(히 12:2) 그대들의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라. 그분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고 견고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분은 그분의 길에서 만난 모든 폭풍과 장애물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다. 그분은 쓰러지지도 낙심하지도 않으셨다. 오직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요 19:30).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분의 본을 좇아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고, 기쁨으로 그대들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과 꽃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적하여 힘써 싸우라.

(1) 변절과 배교의 첫 시작을 주의하라.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게 된다. 변절은 높은 산등성이에서 돌 하나를 굴리는 것과 같다. 이 돌은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 밑으로 내려오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산 위에 있다. 만약 그대들이 그대들의 송고한 고백과 결단의 언덕으로부터 한 번 굴러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십중팔구 배교의 깊숙한 곳에 멈추거나 마침내는 지옥의 깊숙한 곳에 멈추게 될 것이다.

(2) 끝으로, 죄악의 비밀을 벗기는 것에 능통하여 마귀의 계략과 술수를 알아내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 적합한 해독제를 스스로 제공하라. 예를 들어, 원수가 그대들에게 죄가 즐거운 것이라 말할 때, 그에게 양심의 가책의 아픔도 즐거운 것인지 묻고,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죄의 장막에서의 천 날보다 못한 것인지 물어보라. 만약 원수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전지하



신 하나님의 눈을 감길 수 있는지 물어보라. 하나님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죄악을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흰히 드러내신다(시 90:8). 만약 원수가 그것은 작은 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작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작은 것에 불과한지 물어보라. 만약 원수가 죄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고 물어보라. 이러한 본질을 숙고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대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맞서 싸울 견고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후 우리의 마음은 이 땅 또는 지옥에서 불어올 수 있는 가장 맹렬한 폭풍 속에서도 그 영혼을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지키는 매우 훌륭한 중심축이 된다.

6.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출처 | *An Exposition of 1 John*

저자 | 사무엘 에일스 피어스(1746-1849)

영국, 테본 주 업오터리에서 태어난 침례교 목사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랑을 크게 드높인 목사로 유명하다.

역자 | 스테반 황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일 2:19).

18절에서는 그 시기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선언이 담겨 있는데, 이는 사도 교회의 마지막 시기가 거의 끝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시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비들은 이러한 이단자들 및 이단들과 오류들의 위험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 있었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공고히



서있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에 대해 알려주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이러한 자들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알려준다. 그들은 교회에서 유래하였다. 그들은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성 오류를 어떻게 심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참 교회는 그들의 그릇된 교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 피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고백하고 외적으로 그럴 듯하게 행동한 후에 복음의 신앙과 교제를 저버리고 참 교회로부터 분리하더니 그들의 악명 높은 오류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의 악명 높은 관행과 함께 그 오류들을 사방으로 멀리 퍼뜨렸으니, 이는 자신들이 결코 참 신자들이 아닌 사실을 공공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며, 완전한 위선자들이요 거짓 신앙의 고백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필자는 당신을 이러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당신이 그들과 그들의 악한 삶과 오류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주님 편에 서서 그분께 속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은 당신을 그들과 구별시키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주제에 대해 당신에게 언급하고자 한다.

1) 앞 절에서 언급된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다. 그들이 참 교회를 떠난 이유는 거기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도대체 이 배교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만일 그들이 참 교회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교회로부터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떠난 교회는 참되고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그러한 교회였으며, 그 기초와 주요 초석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였다. 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규례,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그대로 순전하게 지켜졌다. 또한 그 안에서는 모든 교회의 계획, 형태, 질서, 규범 그리고 통치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지켜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의 모든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였었다. 그들은 교회의 정규 회원들이었으며, 주의 성찬에도 참여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님의 교회에서 집사로, 또는 말씀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야망은 그러한 것들로 채워질 수 없었고, 이에 그들은 마침내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들은 그들의 독한 영을 따라 가장 집요하게 다른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들보다도 그들 자신들이 소위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는 더 큰 빛을 소유한 척 행동하면서 교회와의 모든 거룩한 관계와 성도와의 교제를 전부 끊어 버렸고 그들이 속하였던 여러 교회들로부터 떠나버렸다. 즉,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매우 구별되는 단어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에 사용되었다. 베드로는 그때 생겨난 교회에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행 1:17)고 말한다. 그는 ‘우리’라는 단어에 교회 전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행 1:21-22).

우리는 ‘우리’라는 이 단어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도다”(엡 5:2).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 1:5). 사도 요한 역시 ‘우리’라는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자들은 교회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허가 없이 교회에서 나갔다. 그들은 왜 떠나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떠나 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버젓이 공개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에 대해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배신자로 떠났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자신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대적하려는 계획을 가졌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더럽히고, 그분의 진리를 부인하고 모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은 가장 끔찍한 일을 행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요한일서에서 언급된 “사망에 이르는 죄”(요일 5:16-17), 곧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규례, 그분의 사



도들, 그분의 교회,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에 등을 돌렸으며, 그들의 오류와 이단과 변덕과 망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위한 어떤 그리스도와 복음을 새롭게 만들어내었다. 사도는 그들이 왜 그런 방식과 태도로 교회로부터 나갔는지를 말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진리 안에 있는 교회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께 거룩하다. 참 교회의 진정한 회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산다. 그들은 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가증하게 여긴다.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떠나 자신들을 위한 조직을 세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참 성도들과 함께 머무는 동안 그들과 하나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기회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교회를 완전히 버렸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들의 등장은 사도 요한의 때였으며, 그때는 사도 시대가 마치기 바로 직전이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일 2:18-19). 이것이 사도가 그들에 대해 알려준 기사이다. 사실, 그때 이후로 항상 그러하였다. 그때부터 우리



가 사는 현대 시대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괴롭혀 왔던 모든 이단들은 교회에 있었던 자들로부터 발생하였다. 그들은 교회 내부에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다가 교회를 떠났다. 오랜 오류가 새로 되살아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를 바랄 것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교회는 기록된 말씀에 쓰인 규례에 따라 주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을 주께 바치고 또한 서로에게 헌신한 성도의 무리라고 하겠다. 나는 성도의 모든 회중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 가운데 많은 교단들은 적어도 구원과 관련해서는 진리의 조항들에 있어서 건전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칭호를 받기에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은 신약이 말하는 동일한 계획과 모델에 따라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향으로부터의 개혁 이래로 일어난 교회의 가장 큰 개혁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시대에 있었다. 오웬(Owen) 박사, 굿윈(Goodwin) 박사, 천시(Chauncey) 박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 계획, 질서, 회원과 직분, 법, 규칙, 정치, 권징 등, 필자가 당신에게 추천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다. 길(Gill) 박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개선된 글들을 적었으나 필자는 추천하지 않는다. 개혁된 교회들은 독립된 교회들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교회들로서 올바른 교회들이다(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가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세례의 규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교회들은 그들 회원들을 오류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체계를 교회 안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교회들 안의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명에 실증을 느끼고 그것을 벗어버릴 방법과 길을 종종 모색한다. 때때로 오류와 이단은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뜻에 따라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전 11:19)고 말한다.

교회에는 주님의 만찬을 욕되게 하고 그것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우리 주(主)의 제도에 따라 적절히 조직된 교회로서 참 교회로 남았다. 물론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은 아니었다. 이와 유사하게 후메나오와 알렉산더가 믿음과 선한 양심에 관하여 파산하여 그들로부터 떠났지만(딤후 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진리와 교리, 그리고 은혜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존속되었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는 것은 영광이다. 참 교회에 대한 분명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몹시 통탄스럽다.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와 동행하기로 헌신한 후에 어떤 부도덕한 사건이나 이단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대다수의 회원들이 그러한 사건을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다른 교회로 옮겨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매



우 위험하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일을 준수하는 자라면,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은 영광이 아니며, 또한 불만이 많은 회원을 다른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에 복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회원들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목사의 사역 아래 함께 모여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것이 항상 최선이다. 그 후, 같은 신앙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신령한 권위에 의해 같은 명예를 매고 이에 속한 의무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복되고 지속적인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이제 필자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겠다.

2) 사도가 어떻게 그의 주장을 확증하는지 살펴보자. 사도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떠난 이유를 참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그들은 참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참 교회에 속하거나 그들의 참된 회원인 적이 없었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의 주장이다. 즉,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였다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침통한 일인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의 사도 교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그 안에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교회 명부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가장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 회원으로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은 가장 더러운 배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도가 가르쳤던 바로 그 교리를 들었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공언하였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정욕과 음탕함에 휩쓸려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교리를 부패시키더니 그것을 그들 자신의 부패한 감정을 장려하는 교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제시하며 사도들이 친히 가르치고 선포하였던 그리스도와 복음의 모든 영광을 퇴색시켰다.

만일 이 비참한 사람들이 한 동안 그리스도를 고백한 적도 없고, 주의 백성과 함께 교회에서 있었던 적이 없었더라면, 교회를 떠나는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가진 적이 없었더라면, 복음을 그렇게 철저히 부패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떠남으로 인하여 한 동안 그들의 이름을 두고 교회에 머물렀던 일은 끝이 났다.

그들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해로운 영향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자 교회를 떠났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그분과 관련된 진리들과 교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와 교리를 통해 그분의 교회 앞에 자신을 계시하며 알려주신다. 이에 성도들은 진리와 교리의 증거들을 확증하게 되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고 말한다.



이단들은 참 교회에 진정으로 속한 자들이 아니라 단지 이름만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결코 속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모든 이단들은 교회로부터 발생한다. 그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설교자 및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거짓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기 위하여 사탄이 일으켜 세운 자들이다. 사도의 말은 그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

이제 필자는 마지막 특별한 주제에 대해 좀 더 말하고자 한다.

3) 왜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서 나갔는지 그 이유를 말하겠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오류와 이단, 그리고 죄악에 빠짐으로 인해 참된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중 앞에 드러난 타오르는 별들과 혜성과 같은 수많은 설교자들을 보아왔다. 그들은 교만한 가운데 잘난 체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위선적인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뛰어난 빛과 열정과 도움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들을 대단히 앙망하는 자들 중에 일부는 그 설교자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택한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어떠한 구절에서 성령을 봅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사실 그들 대부분은) 어리석고 수치스럽게 타락하였다. 그렇다. 그들 모두가 정욕에 의해 가장 수치스럽고 가증스럽게 타락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필자는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공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부패한 그들을 지지하며 경건한 척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설교자들이 권능 있는 설교자들이고, 복음의 설교자들이며 다른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진리에 있어서 분명하고 깊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옹호한다!

독자들이여! 그런 악명 높은 죄인들을 위한 옹호는 우리 시대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끔찍한 표시이다. 음탕한 설교자들과 교사들과 결코 어떤 관계도 갖지 말자.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필자는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더럽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탕함이 공식적인 기독교 세계에 차고 넘칠까 두렵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더러움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주님의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이러한 경륜에 의해 주께서는 존귀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을 구별하기를 기뻐하신다. 요한의 시대에도 가짜들이 참 교회에서 나갔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자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실족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던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은혜라고 부르며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말 이외에는 은혜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면 기뻐하도록 하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구별이 만들어진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정하심에 의해 드러나며 각 사람은 자신들을 향한 주의 목적을 이루게 되지만, 이 사실은 진실로 가장 엄중하며 끔찍하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설교를 듣고 부름을 받지만 어떤 다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때때로 똑같은 말씀 듣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만, 다른 이는 그리스도를 모욕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각 사람의 반응은 매우 다르다. 이렇게 하여 사도가 전한 주의 엄숙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의 벌레와 같은 가련한 우리에게 실현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



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롬 9:18-24).

이 구절에 담긴 질문들은 위대한 진리들을 함의하고 포함한 가장 중요하고 매우 엄중한 질문들이다.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질문들의 무게와 중요성과 권위가 우리 마음에 머무르면 우리는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주의 뜻대로 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끝날까지 이어지며 보존될 것이고, 지옥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은 끝까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또는 누가 일어서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시아에 있던 모든 자들이 사도 바울을 버릴 때 그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 필자는 분명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결코 복음에 대한 신앙 및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건전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삶과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을 장식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 두둔하는 수많은 자들을 의심한다. 이는 필자가 충분히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들은 철저하게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를 씻어낼 것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를 바라보며 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7. 거짓 선생들의 일곱 가지 표시



출처 | *The Complete Works of Thomas Brooks, Vol. 1*

저자 | 토마스 브룩스(1608-1680)

회중 교회 목사이며 저자, 영국 런던 번힐필즈에 묻힘.

역자 | 김성환



첫째 특징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마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 귀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 설교한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사 30:10).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렘 5:30-31).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대하기보다 가벼운 재치로 다룬다. 거짓 교사들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다. 그들은 상처



를 아물게는 하지만 결코 치료는 하지 못하는 악한 의사들과 같다. 거짓 교사들은 지옥을 가장 많이 채우는 자들이다. 그런 솜사탕 같은 교사들은 감미로운 영혼 독살범들이다(렘 23:16-17).

둘째 특징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신실한 대사들의 이름과 명성과 신용을 더럽히고 경멸하고 비방하는데 악명 높다. 예를 들면, 고라, 드단, 그리고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를 그들은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취하고 있다고 고발하였다(민 16:3).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마찬가지로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은 타당한 이유 없이 선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며 그와 말다툼을 벌였다(열상22:10-26).

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사역이 악화되었고 그의 평판도 혹평을 받았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고후 10:10) 그들은 바울을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정죄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지혜자로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멍청이로 여겼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분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동일하게 힘든 상황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지금 시대 역시 마귀는 최선을 다해 이런 악한 활동을 행하고 있다(마 27:63). 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들에게 던지는 오물, 쓰레기 그리고 조롱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셋째 특징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말과 환상을 퍼뜨린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렘 14: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렘 23:16). 이 나라 안에 단지 황금빛의 망상일 뿐이고 속이는 허영심이며 미친 공상일 뿐인 환상을 보는 자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이들은 사탄의 큰 후원자들로서, 만일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막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가장 큰 악인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넷째 특징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복음의 크고 중대한 것들은 쉽게 지나치고 주로 사람의 영혼에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것들을 붙든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딤펴 1:5-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덜



중요한 것에 엄밀하고 더 중요한 것에는 등한시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름이 일어나느니라”(딤펴전 1:3-5). 땅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하고 있고, 지옥은 그들에게 잘 어울린다(마 24:51).

다섯째 특징

거짓 교사들은 매우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가장, 그리고 고급스런 개념과 멋진 말로 그들의 영혼 사냥 및 위험한 교리를 감추고 흐리게 한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말들과 고상한 어조로 위엄 있는 용어들, 즉 조명, 계시, 신화(deification), 불타는 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고 속고 있다. 매춘부가 얼굴을 꾸미고 치장하고 침실에 향수를 뿌린 후에 순박한 영혼들을 훨씬 쉽게 유혹하고 속이듯이 거짓 교사들도 가련하고 무지한 영혼들을 더 쉽게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그들의 가장 위험한 교리들과 신성모독을 다양한 색깔의 물감과 장식으로 덧입힌다. 그들은 설탕이 섞인 독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거짓 교사들은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알약을 금으로 입히고 포장한다.

여섯 번째 특징

거짓 교사들은 설교로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에 그들이 따르도록 하는데 더 분투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



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5). 그들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바쁘다. 그들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익하게 하거나 그들의 삶을 더 낮게 변화시켜 내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개종자를 얻기 위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아비 마귀와 너무 흡사하다.

일곱 번째 특징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상품화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1-3).

그들은 당신의 영혼 구원보다 당신의 재물에 시선이 가 있고, 당신의 영혼을 섬기는 것보다 당신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데 더 관심이 가 있다. 거짓 선생들은 당신의 물질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사탄이 당신의 영혼을 취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계 18:11-13). 거짓 선생들은 당신의 지갑을 더 잘 소매치기하기 위해, 육신에 더 탐닉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칙들을 제시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은 금송아지를 크게 숭배하는 자들이다(렘 6:13).

자, 당신은 일곱 가지 특징을 통해 거짓 선생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피하고 당신의 영혼을 그들의 위험한



땀에서 건지도록 하라. 필자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바란다.

8.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출처 | *The Life and Works of Horatius Bonar*

저자 | 호라티우스 보나르(1808-1889)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이며 19세기에 그의 시와 찬송과 신앙
서적들이 널리 알려졌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르에서 출생

역자 | 오병재



유다서 1:1-25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는 우리에게 옛 예언자의 목소리로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엘리야의 목소리이며 세레 요한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는 그의 시대에서 쇠락해가는 교회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말하고 있다. 그가 특별히 경고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가 오류, 부도덕, 세속화, 영적인 부패, 그리고 교회의 배교에 대해 얼마나 설명하는지! 누가 사도가 설명하는 만연



한 죄악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상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세상은 교회를 흡수해 버렸고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연구해야 할 교회의 상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신속하게 세상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고 “이 세상의 신”(고후 4:4)의 덮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는 이것을 “진보,” “문화,” 그리고 “계몽”이라 부르고 있으며, 다른 세기들의 심한 편견들로부터의, 그리고 우리의 반-계몽된 조상들의 편협함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르며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과는 달리 어떻게 상반된 것들을 조화시키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을 합하며,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믿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합하며,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또한 춤출 수 있는지, 어떻게 죄 가운데 흥청거리면서 또한 죄로 슬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흰 옷”과 또한 보석이 달린 무도회장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수들과도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몸을 내팽개치고 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의 보물과 하늘에서의 보물을 함께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의 잔을 마시면서 또한 악마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악마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유다가 이러한 일관성 없는 형제들에게 적용하는 이름들은 어느 정도 어렵고 이상해 보일 수 있다. “그들의 애찬에 암초”,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로 불리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속해 있었다! 오, 이 얼마나 어두운 인간의 마음인가! 오, 육신의 간교함이며! 죄의 기만이며! 자기의 목적에 맞을 때 뭐든 고백하지 않던가? 지위, 명예, 또는 부를 향한 야망을 갖게 될 때 생명과 신앙과 양심의 갈등에 대해 질문하지 않던가? 오, 이 땅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네 이름을 지닌 자들에 의해 너 교회는 얼마나 어그러지고 더럽혀졌는지! 네게 속하지 않으면서도 네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교회 회원의 복장을 하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들은 너의 간소한 빵과 포도주보다는 이 땅의 흥청거리는 연회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낀다. 그들은 한 밤중에 흥겨움으로 가득한 화려한 불빛의 홀에서 평안을 느끼지만, 너의 주이시며 선생이신 그분의 방에서는 불편을 느끼고 도망치듯 달려 나간다. 그들은 이 땅의 아름다운 얼굴에 매력을 느끼지만, 너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사교적인 풍성한 잔치에서는 즐거움을 얻지만, 너에게 천사의 음식보다 더 귀한 하늘 양식, 곧 참된 살이며 참된 음료인 피에서는 아무런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요 6:55)!

오늘 날의 이중 예배(곧, 하나님과 mammon을 함께 섬기는 것), 반쪽 제자훈련, 종교의 세속화 및 세속화된 종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들의 엄중한 말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한 엄중한 말씀들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들과 관련된 사건들과 장면들을 보고, 읽고, 듣게 되면서 질문을 하게 된다. “교회 또는 세상, 어느 쪽인가?”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닌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하나가 되었는가? 지금 더 이상 교회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없는 것인가?”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대에서나 사도들의 시대에서 이상하고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배교의 싹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다. 에녹이 다가오는 심판과 재림하시는 주를 선포하며(14절) 예언하던 그 대상들이 배교에 속한 자들이었다. “경건하지 못한 행위들”, “완악한 말들”, “매우 허탄한 자랑의 말들”과 같은 것들은 에녹의 시대에도 있었다. 그들은 보복의 홍수에 휩쓸려 떠나려갔다. 그들은 이제 다시 마지막 시대에 더 넓고 더 놀라운 발전된 상태로 등장할 것이며 삼키는 불 홍수에 의해 타게 될 것이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오염된 이 땅을 불의 홍수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후 주께서는 정결하게 된 이 땅으로부터 의가 거하는 새 땅을 끄집어내실 것이다. 사실 마지막 날들의 악함은 더 크고 더 가증할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로다”(시편 2:4-5)고 한다.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 자손의 대적은 마지막 때의 악함 안에서 모두 합하여지고 반복될 것이다. 그때 인간의 마음은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무엇이든 행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우리의 시대에 이미 이러한 범람의 시작을 보지 않는가?

유다서 서신 전체는 우리를 위한 엄중한 사고로 가득 차 있다. 유다서는 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어조와 매우 비슷하며, 그들에게 주는 서문과도 같다. 유다서는 진리와 거룩함으로부터 타락하는 것에 대하여, 세속화와 사치에 대하여, 부풀려진 자기만족과 자기자랑에 대하여, 방탕과 성적타락에 대하여, 열매 없는 종교와 공허한 이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때 그 경고는 마치 마지막 나팔의 전주곡처럼 매우 끔찍하게 들린다.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로서 매우 크며 모든



것을 관통하기 때문에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 두려운 우레 소리에 깨어날 것이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드러낼 것이다. 첫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악과 함께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 소리는 초기의 사도들의 경고를 반복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계의 큰 타락과 배교의 요약을 보게 된다. 거짓을 믿는 “미혹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살후 2:11).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치명적인 관계가 여기에 있다(약 4:4).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의 책망 받아 마땅한 관계가 여기에 있다(고전 10:21). 기독교 교회의 마지막 큰 쇠퇴가 여기에 있으며, 이와 함께 이방인의 때가 마치게 될 것이다. 종교와 비 종교의 혼합, 오류와 진리의 혼합, 육체의 욕망과 자신 있는 신앙 고백의 혼합, 도덕폐기론자들과 고귀한 고백 사이의 혼합, 정치와 철학과 과학과 교회 사이의 혼합,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의 혼합,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의 혼합(딤후 3:1-7)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 흡수되어 버린 교회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보게 되며, 교회와 세상은 각각 서로를 즐거워한다. “자선 잔치”와 주의 만찬에 벨리알의 자손들이 함께 앉아 있다. 거짓이 진리와 동반하고, 진리는 거짓과 협력한다. 음악, 미술, 조각 등의 세련된 예술은 종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감상을 창출하는 것을 돕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엄숙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그것들을 단지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종교적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유다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위험에 대항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도 유다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타락 상태는 아닐 것이다. 질 좋은 금이 흐릿해질 수 있지만, 찌꺼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초기 시대의 기적이나 장엄함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현대 기독교는 그렇게 거룩하거나 신앙심이 깊거나 기쁨이 넘치지도 않는다. 또한 고귀하거나 웅장하거나 찬란하지도 않다. 사도 시대의 성도의 위엄은 이 시대에 사라졌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가련한가! 얼마나 속이 비어 있으며 피상적인가! 어떤 이들은 시무룩하고, 다른 이들은 경솔하며 또 다른 이들은 잘난 척하며, 또 어떤 이들은 분주하고 수다스럽다. 또 다른 이들은 세속적이며 정치적이고, 또 다른 이들은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진지하고 참되더라도 열등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우리 가운데 가장 슬픈 것들 중의 하나는 잘 달려왔던 많은 이들이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한때 믿음에 있어서 열성적이고 건전하였다. 그러나 “진보”의 급류 속으로 휩쓸려 버렸다. 그들은 시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자랑하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덧을 “섭리의 인도함” 및 성령의 가르침으로 오해한다. 그들은 첫 믿음과 첫 사랑을 떠나버렸고, 땅의 운석들 중에 하나를 취한 후에 그것을 하늘의 북극성이라고 믿고 있다. 정치, 즐거움, 쾌락, 사업, 철학, 과학은 그들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이 되어왔다. 영혼의 메마름, 영성의 미천함, 모든 일에 있어서의 미온적인 태도, 그러나 외형적인 종교적 부산함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 그들은 왕성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건짐 받은 악한 세상과 또 다시 사랑에 빠져 있다. 그들은 외적인 예배와 관습적인 이야기의 틀 안에서 침체되어 있다. 그들은 시대의 정신에 자신들을 내어 맡겼다. 하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였고, 반면, 반-기독교적인 오류의 어두운 간교함을 받아들였다. 그 간교함은 처음에는 씨앗 정도의 사상일 수 있어도 충분히 발전하면 인간을 신격화



하고 또한 피조물의 지능과 능력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권력, 숫자, 돈, 상업, 예술을 왕좌에 앉히고는 이 모든 것을 “자연”과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면서 이 땅의 참된 왕권들이요, 인류를 발전시키는 진정한 도구들이요, 사람의 운명의 완성자로 여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들 중 그 누구도 멸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보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상한 현상들을 본다. 사람들은 오늘 어떤 것을 믿더니 내일은 다른 것을 믿고, 그 다음날에는 또 다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진보라고 부른다. 시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여겨진다! 진리는 유연하게 되어 버렸고 원칙은 왁스처럼 쉽게 바뀌고 있다. 누가 보아도 기독교 인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다시 거짓과 세속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달음질을 잘 하더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혀 버렸다”(갈 5:7).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고(갈 3:1),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완전해지려고 하고 있다. 한 때 기쁜 소식들의 즐거움을 설교했던 몇몇 사람들은 천주교의 침울함 및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다. 기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축복의 책을 연구하는데 심취하였던 어떤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책들 중의 최고의 책이라도 단지 여러 고귀한 책들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고상한 책들 모두가 영감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소설이나 신문들 “삶과 인물들”이라고 묘사하면서 그것들이야말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의 진짜 교과서라고 본다. 그들은 이 세상이 어느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설득을 당하였고, 세상의 축제들, 사치품들, 그리고 유쾌함은



좋은 것들이며 이는 기독교인이 굳이 포기하지 않고 즐겨도 괜찮은 것들로 보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당혹스러워 하며, “구원받은 이들이 있을까?”라고 묻는다. 우리는 불신자가 신자와 너무나 비슷하기에 깜짝 놀란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완전하게 타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며 놀란다. 사람들의 헛된 쇼에 속지 말자. 멋지게 보이는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모든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는 말은 여전히 사실이다. 어떠한 ‘문화’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요 3:6). 육체의 ‘진보’는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분명히 추락할 것이다.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진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면 세상의 진정한 진보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가 인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현재에 진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얄팍한 것들인지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거듭남이 없이 하늘에 들어가려 했던 인간의 마지막 교만한 노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 하였고 또한 인간이 파멸시켰던 세상을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바로 잡으려 하였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회복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신 왕이 즉위함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9. 목사의 직무와 배교



출처 | *The Works of John Owen*, Vol. 7

저자 | 존 오웬(1616-1683)

회중 교회 목사이자 신학자. “청교도의 왕자”로 불린다.

영국의 옥스퍼드셔의 스태드햄프톤에서 출생

역자 | 안선형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수고하며 시작하셨던 사역은 사람을 복음에 순종하도록 회심시키고 그 안에 거하게 하는 위대한 수단이었다. 회심한 사람들의 교리, 영혼, 모범, 관습, 삶의 지침, 기도, 설교 등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 향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목적에 맞게 변성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였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 사역의 직분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다(엡 4:11-15). 교회는 그에 비례해서 성장하거나 쇠퇴한다. 사역자의 직분의 본질과 직분 제도의 목적, 또한 그 직분에 따르는 직무와 의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관찰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의견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만일 이 직분을 담당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현저할 정도로 형편없이 의무를 수행하거나, 특히 오랫동안 그렇게 행한다면 그들은 타락하게 될 것이며 복음의 원리를 변질시킬 것이다. 태만한 목자는 절대로 양 떼를 보호할 수 없다. 제때에 땅을 갈지 않은 들판은 잡초와 가시나무, 쪼레로 가득 덮이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교회의 목사들과 교사들에게 직분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는 의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이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감히 그러한 의무를 부인할 수 있거나 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 목사는 복음의 교리, 특히 복음이 명령한 거룩함과 복음과 관련된 본질, 사건, 동기, 목적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며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구약성경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말 2:7)라고 말한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 직분을 세워주신 주된 한 가지 목적이다. 복음을 선포하고 변증하고 방어함으로써 진리를 수호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인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거나 무지하게 되지 않게 하고, 복음을 거부한 유혹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직분을 교회에 세우신 가장 큰 이유이다.

둘째,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지식, 복음의 비밀, 진리의 교리를 교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단과 방법을 자신들의 영혼과 양심에 따라 즉시 적용할 것이다.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전념하는 목적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 진리를 보존하거나 지식의 비결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 1) 목사는 아주 신중하고,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의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가! (딤후 4:1~2)
- 2) 목사는 영과 육이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직분과 직무로 표현된 이름은 전심전력을 다 하는 수고를 내포하고 있다.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쓴 것처럼”(행 6:4), 즉, 전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사역한 것처럼, 사역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온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딤후 5:17; 고전 6:16; 살전 5:12).
- 3) 목사는 모든 직무에 노력을 기울이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목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인들의 마음과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된다.



셋째, 목사는 인간의 연약함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성품과
행실, 삶과 태도, 특히 목회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때에 자
신이 설교하는 가르침과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일에 있어
서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10. 끝까지 보호하심



출처 | From "The Cross the Preservation from Final Apostasy"
in *The Attraction of the Cross*

저자 | 가디너 스프링(1785-1873)

장로교 설교자이자 저술가.

뉴욕의 브릭 장로교회(Brick Presbyterian Church)에서 1810년
부터 63년간 목회, 미국 매사추세츠 주 뉴베리포트 출생

역자 | 조현목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굳건히 유지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매력이다. 한 번 선택 받은 자는 결코 그 택하심을 잃을 수 없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에 의해 한 번 인도하심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의 연대가 깨어지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한 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한 번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모든 참된 신자의 최종



적 견인은 확실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할 수 있는 한 간단명료하게 이러한 입장의 근거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참회하는 아담의 타락한 어떤 후손을 발견한다. 그가 십자가 앞에 나온 것은 그의 마음에 나아올 마음이 자연스레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한때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거룩한 구원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했다.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선포되었으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사 죄로 인한 사망에서 신령한 생명으로 그의 본성을 변화시키실 때까지 그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골 3:10)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로 부패했던 피조물을 잠에서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의 아들의 십자가로 인도하사 믿음 안에서 그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장래 어떤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로부터 끌어 내사 멸망시키시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선포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시 37:28).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



심이라”(엡 1:13-14).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미완의 상태로 남기시지 않고, 그분이 은혜로 시작하신 것을 영광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면,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한번 연합시키신 자들을 버리신다는 것은 성경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될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관점을 살펴보자. 최근에 십자가로 나아와 거듭난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본성을 지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 그가 믿은 순간부터 죄로 인해 초래되었던 정죄의 선고는 제거되었다. 그는 법적으로 형벌에 대해 사면 받았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의 빛은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의(righteousness)가 그에게 전가되었다. 그로 인해 과거에 모독을 받으셨던 주권자의 은총으로 그는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세주와 연합되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고 몸의 각 지체들이 머리와 하나가 되듯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벧후 1:1) 살아있는 포도나무와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falling away) 개념



이 어떻게 모든 신자들의 칭의(justified) 상태와 조화될 수 있는가? 바울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상태를 설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1-2). 그는 신자들의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구적인 회복으로 보았으며, 뒤이어 그의 입장을 강력하고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 하시겠는가!’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칭의에 관한 모든 표현들은 이와 완벽히 부합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분이 한 번 용서하시면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히 10:17). 칭의는 생명 아래 있는 존재에게 영원한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처럼 그분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영원히 멀



망할 것이라는 가설이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격려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더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처음 믿음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그와 이루어진 연합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만약 그 누구도 거룩함 가운데 인내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며 또한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모든 믿는 자들은 거룩함 가운데 인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삼하 23:5)한 엄숙하고 단호한 형태의 언약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사 55:3)의 약속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을 읽어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렘 31:31-33 ; 32:40).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에서, 바울은 이것이 새로운 언약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시내산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히 8:6)임을 명확히 한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며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은총이 보장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을 포함하며 이 약속은 대단한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상태는 이 언약의 복들이 드러난 상태로, 믿음에 주어지는 약속들 중 하나다. 이 언약의 위대하고 중요한 조건은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히 10:14). 하지만 그들이 큰 보증과 함께 믿음으로 체결하는 조건들 안에는 신자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종속 조건이 있는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 이 은혜로운 언약의 위로를 촉구하는 사도들의 선포는 이 글의 목적과 가장 잘 맞는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8-39). 만약 칭의의 상태로부터 최종적인 분리(*falling away*)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선언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40).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고난당하신 위대한 분과 연관되어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진리를 충분히 만족시키며 이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제공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신자들을 영원히 붙든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끝까지 거룩하게 보호하시며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죄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권리는 영원토록 그에게 보장되었으며 죄를 씻으시는 그의 보혈에 의해 얻어지고 봉인되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엔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사 53:10-11).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원 전에는 영생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 있었는가? 영생의 약속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으며, 이는 이후 그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과 그의 고난과 죽음의 대가로 일찍이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불확실한 보상을 위해 내려놓지 않으셨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엡 3:10)이며 어둠의 왕인 사탄에 대한 그의 영광의 승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역이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의지에 달려 있었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이것이 인간의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생각에 달려 있었다면, 한 번 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가 최종적으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



있을 것이다. 그분이 그 모든 불확실하고 의심쩍은 일을 위해 죽으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시기 전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회개와 회심과 믿음과 최종 견인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무리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궁극적인 배도에 이를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 위대한 약속은 인자의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기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종종 이 약속을 언급하셨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요 17:2).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29).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구원 받은 자는 배교를 거부한다는 보증(security)이 여기에 있다. 고난당하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의 권리를 베푸실 권한을 갖고 계시다. 십자가와 관련된 교리에 대해 롤랜드 힐¹⁾의 일화를 보도록 하자.

1) 힐(Rowland Hill, 1744-1833) - 영국 런던 서더크(Southwark)의 썬리 교회(Surrey Chapel)에서 목회했던 영국 성공회 설교자. 종종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에 의해 언급된다.



롤랜드 힐 경의 친구가 말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말도 안 되는 예정론을 붙들고 계시는 것 같군요.”

롤랜드 경이 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예정하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정하심이 저를 붙듭니다.”

신자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십자가가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falling away) 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자들의 구원을 보증하실 수 없을 것이다.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영혼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자들을 영원토록 굳건히 붙드시지 않는다면 이는 주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주님은 자신의 상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삶에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쁘심으로 그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드러나고 저지르게 될 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미쁘심이 그 죄들을 씻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시 89:3).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시 89:19, 29-33).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신실한



(*bona fide*)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신자들의 마음을 통제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운명을 다스리시는 한 결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할 수”(롬 3:3) 없다. 위험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 주변에 촘촘히 들어서 있고 때때로 그들은 원수들의 손에 의해 넘어질까 두려워 떨지도 모른다. 하지만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중보의 제단으로부터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눅 12:32). 만약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넘어진다면 이러한 언약과 약속에 대한 완전한 소망의 확신이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의 뚜렷한 증거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고 흔들림이 없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확실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에 대한 조금의 불확실성이라도 있다면, 신약과 구약의 신자들이 가졌고 아브라함이 표현했으며 다윗이 때때로 그리고 경건하게 노래했고 바울이 영광을 돌렸던 온전한 소망의 확신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이론을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십자가가 그것을 붙드는 자들을 충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성경에서 그토록 종종 즐거워하며 일관되게 요구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과 확신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위대한 십자가 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위로와 감화가 되도록 하자. 그리스도인



들이여, 이것이 바로 당신의 구원에 대한 보증(security)의 약속이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 17:5). 당신의 인생길을 나아가며 기뻐하라.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당신을 흠 없는 존재로 서게 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 가장 연약한 양이라도 크신 목자의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안전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천국이 시작된 것이다. 당신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낙심을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나약함을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어둠을 멀리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뒤돌아보라! 보좌에 계신 분을 올려보라! 다시 오실 그분을 내다보라! 당신의 구원자시며 위로자시며 의로우시며 힘 되시며 구원의 대장이시며 기업이 되시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천국 그 자체는 하나님의 독생자만큼 대단한 선물물이 아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1-32).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일 모든 참된 신자들이 끝까지 인내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의인들’이 구원을 받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틀림없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벧전 4:18) 당신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



왔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섰다. 당신은 이제 시작해야 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당신은 아직 생명으로 이르는 길 위로 들어서지 않았다. 당신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당신은 갑주를 입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다. 당신은 목적지에 이르러 승리를 얻고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는가? 많은 일을 이룬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전할 수 있는가? 오. 언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인간적인 확신을 넘어서는 뭔가를 붙들고 끝까지 달리겠는가? *한 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십자가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 - 이것이 소망에 매인 자로써 우리가 그분의 요새로 피해야 하는 이유이다!

개혁복음주의회 제 3호
배도

저자: 아더 핑크/ 찰스 스펀전/ 에벤에젤 어스킨/ 사무엘 에일스 피어스
토마스 브룩스/ 호라티우스 보나르/ 존 오웬/ 가디너 스프링
역자: 오웅근/ 이증원/ 스테반 황/ 황모세/ 김성환/ 오병재/ 안선형/ 조현목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translates and
publishes this material from (www.chapellibrary.org)
by permission of Chapel Library.

개혁복음주의회는 채플라이브러리의 공식적인 허락 하에
www.chapellibrary.org로부터 이 글을 가져와 번역하고 출판합니다.

발행일 초판1쇄 2017년 5월 30일
발행처 개혁복음주의회
등록번호 제2016-000024호 / 등록일 2016년 12월 28일
주 소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28-10 103동 202호

* 잘못된 책은 바꾸어드립니다.